

SOUL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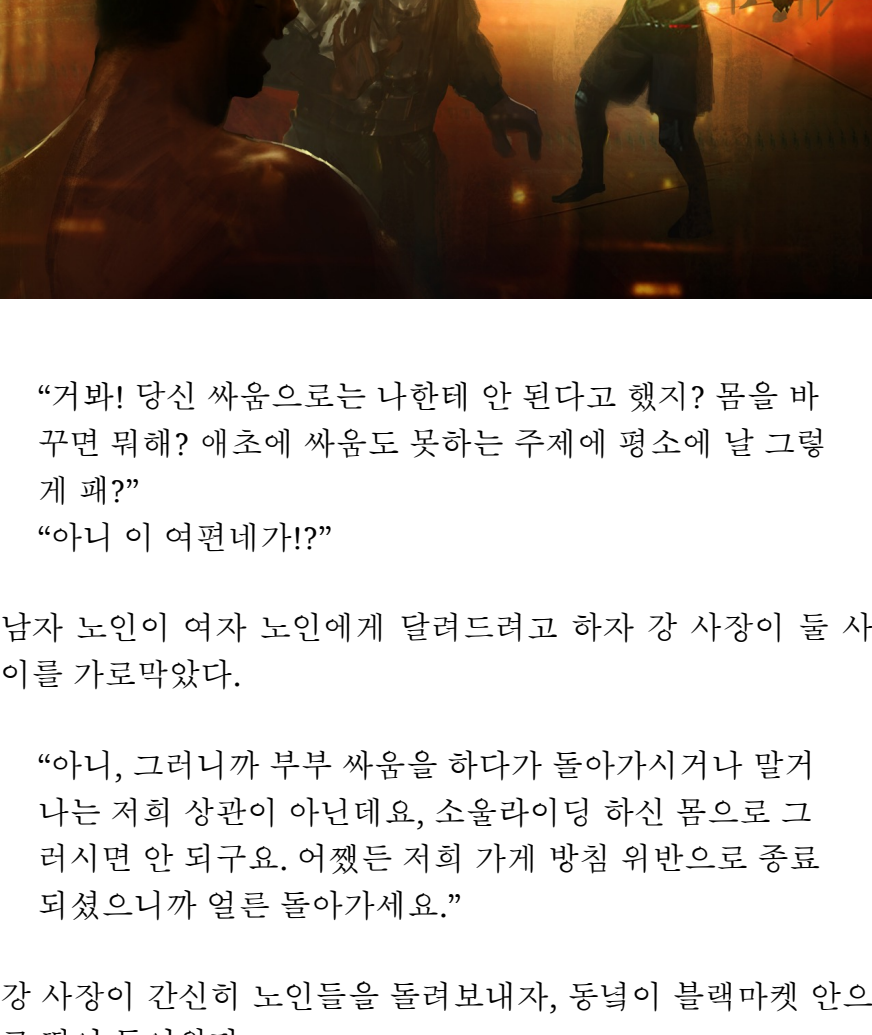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3



파고다 공원 인근의 후미진 블랙마켓, 철창 안에는 목 뒤에 소울라이딩을 위한 기계 장치가 붙은 몸 좋은 남자들이 격투를 하고 있고, 철창 옆에는 노인들이 안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던 천수가 철창을 열고 나와 칼을 들고 다시 철창 안으로 난입해 다른 천수를 꺼르려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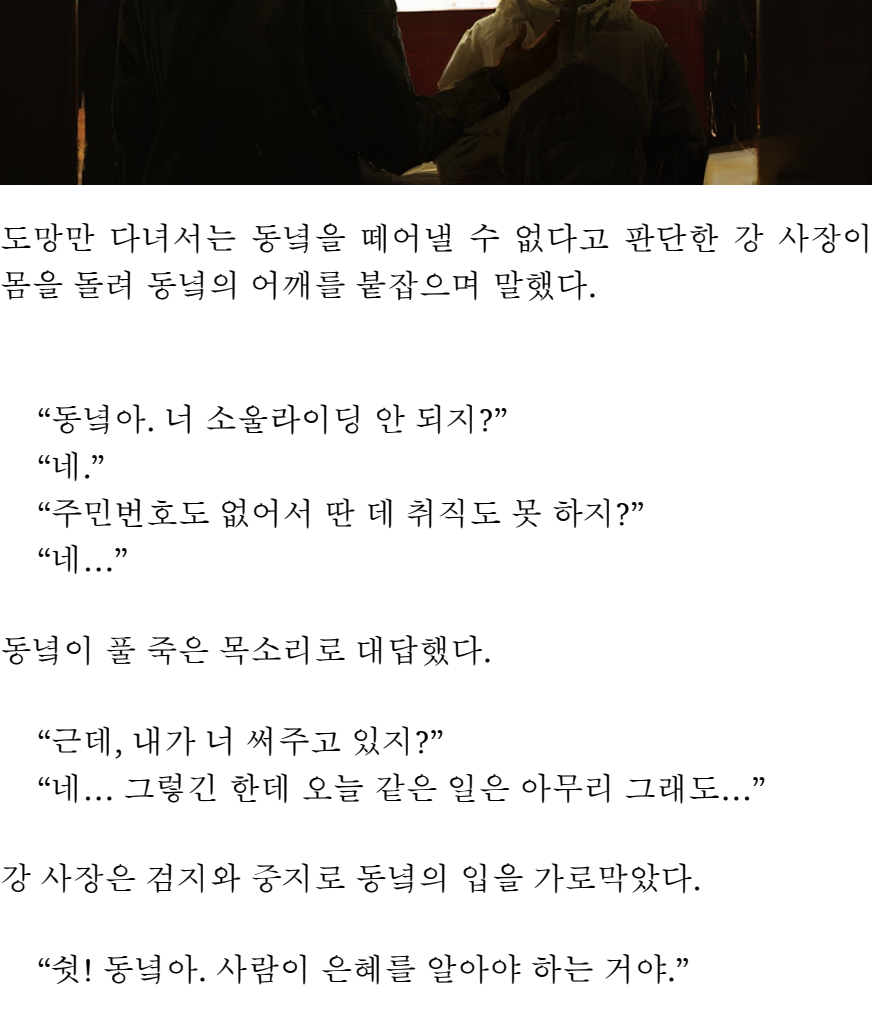
갑자기 ‘땡 땡 땡’ 종이 울리며 소울라이딩 장치의 불이 꺼지는 동시에 천수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키가 작은 강 사장이 보디가드들과 함께 등장해 안마 의자에 앉은 노인들의 앞에 섰다.

“아니 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무기 사용 금지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할아버지 몸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여편네가 자꾸 반칙을 하는데 그럼 어떡해!”

노인이 맞은 편에 누워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눈을 감고 있던 여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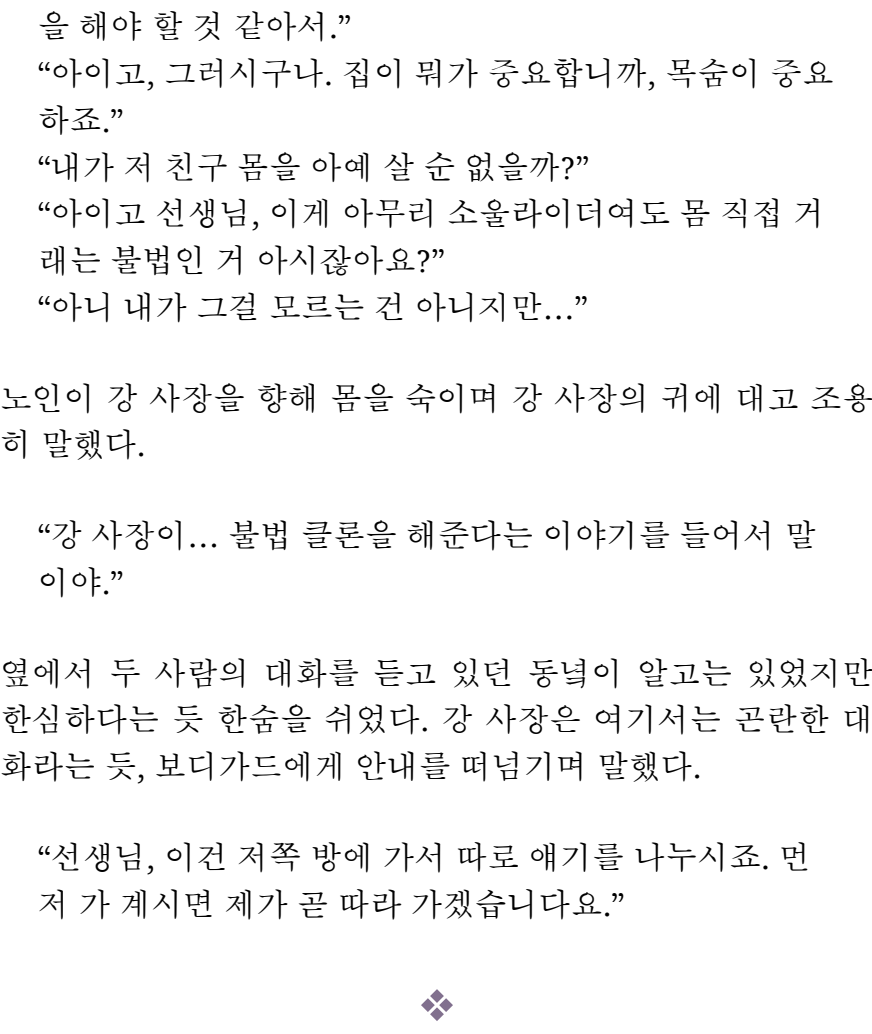
“거봐! 당신 싸움으로는 나한테 안 된다고 했지? 몸을 바꾸면 뭘해? 애초에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평소애 날 그렇게 해?”

“아니 이 여편네가?”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강 사장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니,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말거나는 저희 상관이 아닌데요, 소울라이딩 하신 몸으로 그러시면 안 되구요. 어쨌든 저희 가게 방침 위반으로 종료 되셨으니가 얼른 돌아가세요.”

강 사장의 간신히 노인들을 돌려보내자, 동넛이 블랙마켓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사장님!”

놀란 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넛이! 오늘 잘 다녀왔어!?”

“아니, 사장님! 저 오늘 어디다 팔아먹은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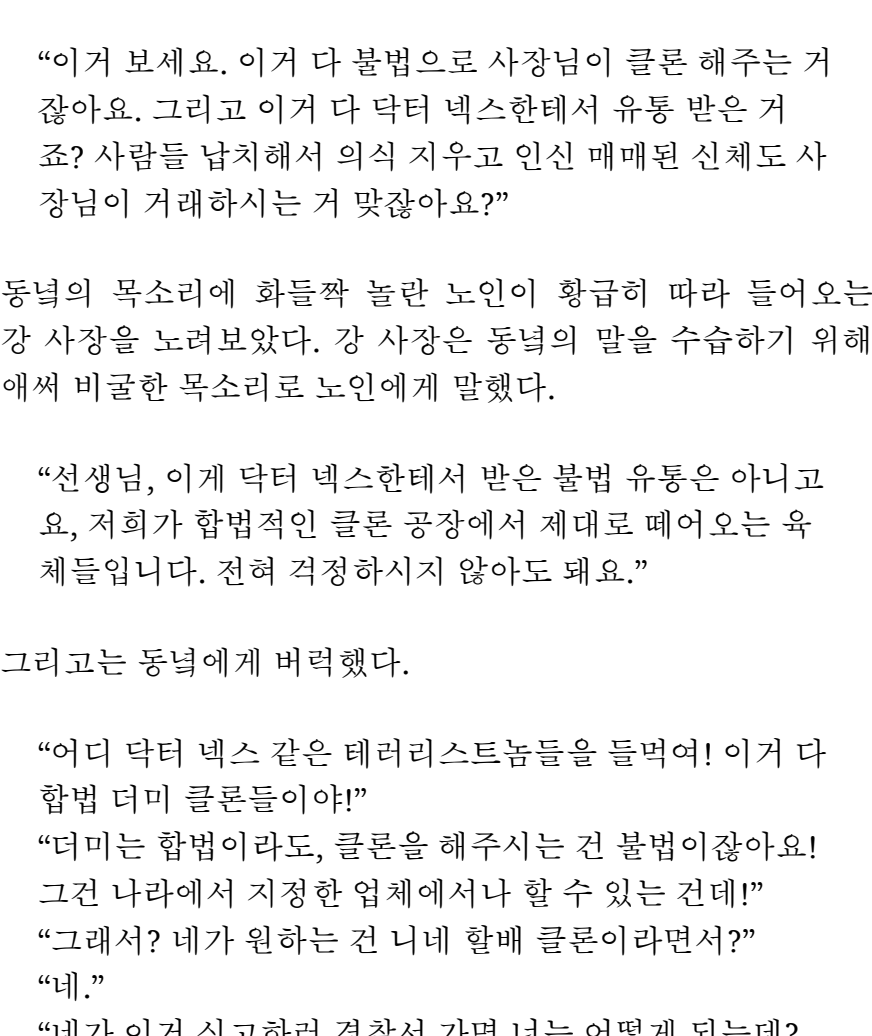
“팔아먹다니! 내가 신검 써서 일 붙여준 건데 어디 배운 망적인 소릴 하고 있어?”

“아니 사장님, 오늘 저 팔아먹은 곳! 거기 사람 죽이는 곳 이었다고요! 나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 아무리 소울라이더라도 죽이는 곳이 어딴데? 그 건 안 되지!”

강 사장은 애써 자리를 옮겨가며 엽장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동넛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계속 말했다.

“그게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클론 쪽 빼입고 와서, 원래는 소울라이더가 아니라 님비 클론들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왜 간 거예요? 사장님이 알고 보내신 거 아니예요?”



도망간 다너서는 동넛을 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강 사장이 몸을 돌려 동넛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동넛아, 너 소울라이딩 안 되지?”

“네.”

“주민번호도 없어서 댄 데 취직도 못 하지?”

“네...”

동넛이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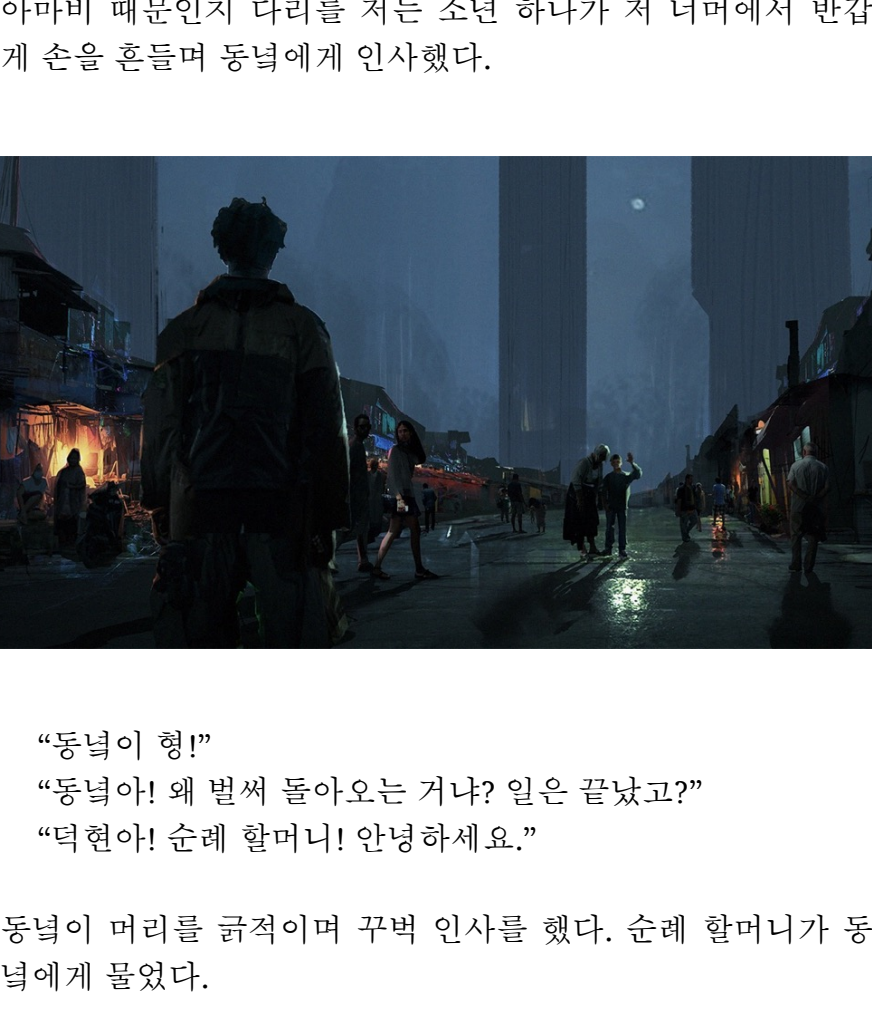
“근데, 내가 너 썩주고 있지?”

“네... 그렇긴 한데 오늘 같은 일은 아무리 그래도...”

강 사장은 검지와 중지로 동넛의 입을 가로막았다.

“셋! 동넛아,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야.”

말문이 막힌 동넛이 대답을 못하자 강 사장은 동넛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떠버렸다.



안쪽에서는 거울처럼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는 구조의 유리방, 안쪽에는 초이스를 기다리는 소울라이더 남자와 여자들이 금색, 은색, 동색 번호판을 달고 섞여서 도도하게 앉아 있고, 바깥에는 나이를 먹은 노인들이 라이더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강 사장이 등장해 노인들에게 흥경하듯 소리쳤다.

“잘들 보고 골라주세요! 기본 한 시간에 섹스, 격투, 마약 가라지 않고 배든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살인, 신체 유기 같은 건 안 됩니다!”

한 노인이 강 사장에게 말했다.

“나 골랐어, 저기 금색 번호판 31번.”

“아, 우진이요? 저 친구는 금색이라 많이 비쌌습니다.”

“강 사장, 나 기억 못해?”

강 사장은 그제서야 노인이 단골 손님임을 깨닫고 한껏 비굴해진 목소리로 화답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또 오셨구나! 우진이 지정 고객이지시죠? 제가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지, 내가 이번에 짐까지 팔았어. 아무래도 클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내가 저 친구 몸을 아예 살 순 없을까?”

“아이고 선생님, 이게 아무리 소울라이더어도 몸 직접 거래는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노인이 강 사장을 향해 몸을 숙이며 강 사장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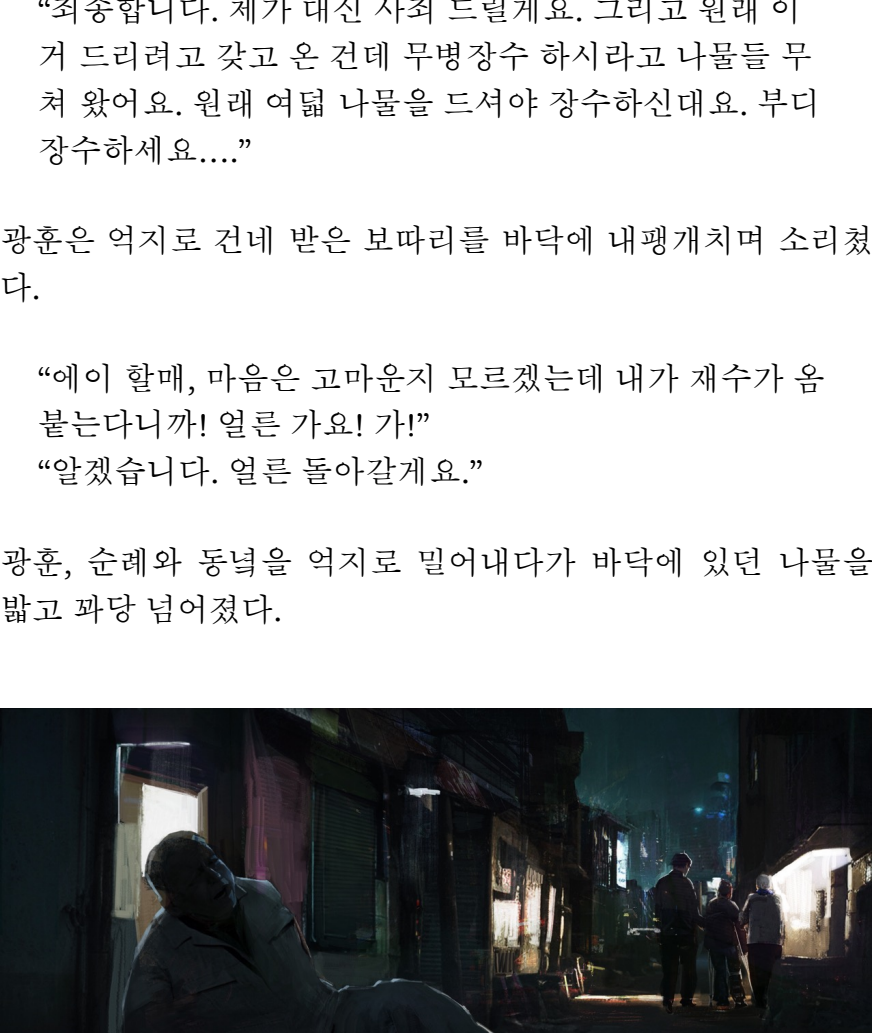
“강 사장이... 불법 클론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야.”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동넛이 알고는 있었지만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강 사장은 여기서는 곤란한 대화라는 듯, 보디가드에게 안내를 받아가며 말했다.

“선생님, 이런 저쪽 방에 가서 따로 얘기를 나누시죠. 먼저 가 계시면 제가 곧 따라 가겠습니다요.”



허름하고 움푹해 보이는 강 사장의 사무실에서 동넛이 강 사장에게 말했다.



“어쨌든 사장님, 저 이제 선불금, 그러니까 마이킹 다 갚은 거 맞죠?”

“뭘, 그렇긴 한데.”

“그럼 저 사장님 불법 소울라이딩하고 야매 클론 만들어 주는 거하고 그런 거 다 비밀로 할 테니까 우리 할아버지 클론 좀 해주세요.”

강 사장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야! 클론이 얼마데 아무리 야매래도 네 할배 클론을 해달래? 아까 저 노인네도 집 팔고 왔던 소리 못 들었어? 그리고 너 마이킹만 갚은 거지,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 그리고 이런저런 불법이고 야매고 다 증거 있어? 그러는 너야말로 소울라이딩 면허는 있어? 이거 봐!”

강 사장이 액자에 걸린 면허 허가서를 가리켰다. 줄은 삐뚤빼뚤하고 내용은 오타 투성이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조된 허가서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허가서였다.

“사장님, 이게 오리엔티스가 아니라 오리엔티스잖아요. 공문서 위조까지 추가예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도 있거든요?”

강 사장이 쭈뼛거리는 동안, 동넛은 강 사장 책상 밑의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뒷쪽 벽이 돌아가며 열렸다.

벽이 문이 되며 열린 공간 너머에는 유리 캡슐 안에 열려진 신체가 가득한 실험실 공간이 있고, 노인과 보디가드가 그런 신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불법으로 사장님이 클론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닥터 벅스한테서 유통 받은 거죠? 사람들 납치해서 의식 지우고 인신 매매된 신체도 사장님이 거래하시는 거 맞잖아요?”

동넛의 목소리에 화를뜬 놀란 노인이 황급히 따라 들어오는 강 사장을 노려보았다. 강 사장은 동넛의 말을 수습하기 위해 애써 비굴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게 닥터 벅스한테서 받은 불법 유통은 아니고요, 저희가 합법적인 클론 공장에서 제대로 메이오는 육체들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는 동넛에게 버럭했다.

“어디 닥터 벅스 같은 테러리스트놈들을 들먹여! 이게 다 합법 더미 클론들이야!”

“데미는 합법이라도, 클론을 해주시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나네 할배 클론이라면서?”

“네.”

“제가 이제 신고하러 경찰서 가면 너는 어떻게 되는데? 주민번호도 없고, 너야말로 대포 클론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잡혀가겠조...”

“근데 그런 네가 여기서 뭘 믿고 날 협박하는 거냐, 동넛아?”

“아니, 협박이 아니라요...”

동넛이 잔뜩 기가 죽은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인 건데요...”

“누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세기가 어딴냐? 너야말로 지금 내가 신고해서 바로 보내버릴 거니까 각오부터 해라!”

강 사장이 보디가드들에게 신호하자, 보디가드들이 무전으로 경찰에게 신고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사색이 된 동넛이 강 사장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아니 사장님, 그런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일을 겪는 바람에요.”

“뭘해? 빨리 이 새끼 붙잡아!”

보디가드들이 동넛을 붙잡았다.

“아니 사장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요, 네?”

멀리서 경찰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동넛이 화들짝 놀라 보디가드들을 뿌리쳤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동넛은 건물 밖으로 도망쳐 버렸다.

동넛이 떠난 것이 확실해지자, 강 사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성기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내는 장치를 연결해 소리를 내고 있는 보디가드에게 신호를 쏘자 더 이상 사이렌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갔으니까 꺼라. 내 심장도 발렁거린다.”

보디가드가 사이렌 소리를 끄자 강 사장은 노인 손님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다 합법 클론들만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우진 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클론을 하려면 비용이 아주 조금은 더 들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되고 약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동넛은 낙심한 채 판자촌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한 할머니와 소아마비 장애인지 다리를 저는 소년 하나가 저 너머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며 동넛에게 인사했다.

“동넛이 형!”

“동넛아! 왜 벌써 돌아오는 거냐? 일은 끝났고?”

“덕현아! 순례 할머니! 안녕하세요!”

동넛이 머리를 꺾으며 꾸벅 인사를 했다. 순례 할머니가 동넛에게 물었다.

“밥은 먹었꼬?”

“네.”

동넛의 대답이 무색하게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유, 또 굶었어? 얼른 같이 가자.”

“어디 가시는데요?”

순례 할머니 대신 덕현이 대답했다.

“형! 우진이 형네 아버지가 내일 클론일이라 오늘 마지막 잔치를 하신대!”

“그래, 얼른 가서 밥이라도 먹고 가.”

동넛은 마지막에 마을 회관으로 터덜터덜 따라갔다. 마을회관 안에는 ‘차광훈 영상 제작! 경축!’이라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고 손님들이 뚝뚝 씹고 있는 가운데, 소아마비 아동도 노이는 광훈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례와 덕현, 그리고 동넛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오자 광훈이 갑자기 노래를 중단하고 씩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수?”

“아저씨 잔치 하신다고 마을 사람을 초청하셨길래 축하드리러 왔어요!”

덕현의 대답에 광훈이 아이코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축하하는 자리지. 근데 이 잔치날에 무슨 부정을 타게 만드려고 병든 노인네가 오셨나고, 그것도 병신 손자 데리고!”

“아니 우진이 아버지! 말씀이 심하지않아요! 축하드리러 오신 분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동넛이! 나도 부정 거리야. 니네 할배도 병상에서 오락가락할잖아. 내가 내일부터 영생을 앞두고 있는데 이 형게 내일모레 하는 몸들이 와서 부정 탈 일 있어? 얼른 나가!”

광훈이 순례를 거칠게 밀어 쫓아냈다.

동넛이 쓰러진 순례를 부축해 일으키며 소리쳤다.

“이 아저씨가 보자보자 하니까! 어차피 내일 클론도 하시겠다 오늘 그냥 만신창이 되도록 저한테 맞아보실래요?”

“어허! 발발이도 못하는 세기가 나대는 거 보소? 그래, 내가 어차피 버릴 몸 너한테 맞고 갠걸이라도 벌여보자. 어디 때려봐!”

광훈이 어디 한 번 때려보라는 듯 머리를 동넛에게 들이밀었다. 순례가 둘 사이를 가로막으며 진정시켰다.

“아이고, 이리저 마서요. 죄송합니다. 우진 아버지, 이 누추한 사람이 괜히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축하드리려고 했는 다합법 클론들만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우진 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클론을 하려면 비용이 아주 조금은 더 들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되고 약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동넛은 억울함을 간신히 억누르며 힘겹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광훈은 일부러 ‘크흠’ 소리를 내며 말했다.

“뭘, 그래. 오늘 좋은 날이니 내가 참지.”

괜히 의기양양해진 광훈이 소리쳤다.

“너도 우리 우진이처럼 열심히 소울라이딩을 하든가, 네가 영 모자라서 그래 안 되면 다른 노가다라도 뛰든가!”

“아저씨, 요새 노가다 자리가 어딴데요. 다 기계들이 일하는데.”

덕현의 말에 광훈이 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면 우리 우진이처럼 몸을 잘 타고 났어야지! 뭐 어차피 안될 거, 너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걸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가라. 그렇잖아도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못재야. 좀 속아볼 필요가 있어. 잘난 사람은 영생하고, 못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 이 지구도 좀 정화될 필요가 있어!”

“아니 아저씨, 정말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내가 들린 말 했어? 이 할머니, 너네 할배나, 너네. 이 사회에 계몽 도움 안 되는 잉여인간들이야. 그렇다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덕현이를 보며 말했다.

“덕현이, 너는 이 형처럼 크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얼른 소울라이딩 해서 돈 열심히 벌이라. 소아마비 아동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애인 체험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나.”

“아니, 애씨씨! 애한테까지 이러기예요? 오늘 정말 지랄한 판, 해볼래요?”

“이거 봐! 이런 놈이 사회 악인거야, 그쵸 여러분? 이런 놈이 있는 세상이 많이 밝아지니까?”

순례가 동넛을 팔러다니 보따리 하나를 광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이거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무병장수 하시라고 나물을 무쳐왔어요. 원래 여뮬 나물을 드셔야 강수하신대요. 부디 강수하세요...”

광훈은 억지로 건네 받은 보따리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에이 할배, 마음은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내가 재수가 음 붙는단니까! 얼른 가요! 가!”

“알겠습니다. 얼른 돌아가세요.”

광훈, 순례와 동넛을 억지로 밀어내다가 바닥에 있던 나물을 밟고 파당 넘어졌다.

“아이고! 이거 봐! 재수 음 붙었잖아! 아이고 내 엉덩이 뻑... 119 좀 불러줘!”

치켜보고 있던 한 손님이 소리쳤다.

“아니, 어차피 내일 클론할 건데 좀 참아요!”

Continued to ep.04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